

세계시민정신교육의 방향

오 세 윤 (Oh, Sae-Yoon)*

(E-mail : syoh@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1년 4월 1일

논문심사일 : 2011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전남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교수

세계시민정신교육의 방향

<국문요약>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세계시민정신도 시기에 따라 변한다. 본 연구는 시대별 시민정신의 이름을 근대성, 시민의식, 감성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본다. 감성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달리 명명될 필요가 있다. 근대성은 Maslow의 생리적·안정적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민의식이 민주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끝으로 임시적 이름의 감성(사회지능)은 개인, 집단, 사회 및 국제관계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개의 시민정신은 상호 배타적인 영합 게임(zero sum game)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가정, 사회, 국가를 넘어선 범사회적·국제적·자율적인 교육·훈련 기제가 필요하다. 국내 및 국제의 제 관계에서 고원은유(plateau metaphor)를 모델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근대성, 시민의식, 감성, 고원은유, 범사회적 교육기제, 시민정신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시민정신은 근대성, 시민의식, 감성의 순서로 변화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시민정신이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행동(behavior)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을 직접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행동이 변하려면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동양의 고전적인 사고방식이 시민정신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¹⁾이 논리에 따라 행동변화를 다루는 대표적 이론인 피스바인과 아젠(Fisbein and Ajzen 1975, 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 여러 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오세윤 2008; 오세윤·김영기외, 2007; 오세윤·이창호 2005).

근대성(modernity)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후진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태도, 지식, 가치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근섭외, 1985: 7-42). 그들이 이전에 경험한 봉건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체계인 시장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시민의 가치체계이다.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후 미소 양대 진영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근대성은 영미 선진국이 제2차 대전 후 독립한 자유 진영의 개도국들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훈육되고 이끌어지는 발전행정(developmental administration)적 상황에서 행해진 이념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이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동양적 사고 양식이 서구 학자 William James에 의해 선도되는 양상을 보이는 재미있는 상황연출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시민의식(citizenship)에서는 국가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권리보다는 책임이나 의무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내지는

1)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 분야나 과학 분야, 공장을 짓고 우주공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분야가 아니고,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주 인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http://blog.naver.com/ssmgt/100349929/2011.2.13>일)에서 재인용. 이 사고 방식은 동양에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지혜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내지 태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과 태도를 갖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이 강조되기도 하고,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시민 소양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교육이 강조되기도 한다(심연수 2010, 7-26; 신두철 2009, 72-81; 유승우 2005, 87-108). 경쟁과 질서의 조화를 위해서 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오관석·신기현 2008, 68-106). 시장경제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사회질서에도 보이지 않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런 부류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조직 시민 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action),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등일 것이다.

감성 및 사회지능(emotions & social intelligence)은 앞의 두 가지 개념과는 달리 정치 상층부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혹은 의학이나 신경과학 분야에서 인간 개인의 발전, 나아가 조직과 사회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념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감정이입(empathy)을 할 줄 알고, 타인을 배려하고(considering), 그들과 파장(tuning)을 맞추고 조율하는 일이 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이나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 및 사회의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Goleman 1995, 2006). 여기서도 교육의 중요성 강조됨은 물론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 던져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체계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선 생각나는 대로 세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앞에서 기술한

세 개의 상황이 겹쳐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본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살아오던 사람, 이민 근로자,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으로 떠나기도 한다. 외국으로의 진출과 전입이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성, 시민의식, 감성 및 사회지능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시대 상황은 어떠하리라고 예상되는가?

셋째, 무엇이 사람들을 근대적이게 만드는가(근대성)? 무엇이 사람들을 들로 하여금 시민의식을 갖게 만드는가? 또 무엇이 사람들을 감정적이게 하고 사회적으로 지능 있게 만드는가? 되풀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근대적으로 변하고, 시민의식을 갖게 되고, 또 감성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지능을 갖게 되는가?

위의 세 질문은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결하기가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접근하기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나 방법이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세 질문 모두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접근 논리를 밝히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

세 개의 질문 순서에 따라 본 연구가 다루어야 할 논의의 순서를 정해보자.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시민정신(civic virtue 혹은 citizenship)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겪었던 시대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고, 앞으로 올 시대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사회화시키느냐에 따라 필요한 시민의식이 길러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한다. 양육 전략 혹은 교육전략의 반성을 세 번째 논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끝으로 연구 질문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주목해야 할 것으로 이 분야의 경험적 연구가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로서 구성개념(constructs)²⁾들을 정

2) 연구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추상성이 높는데 이들 개념을 구성개념, 잠재변수, 이론적 개념, 혹은 가설적 개념이라고도 한다. 실제 측정할 때 사용되는 측정개념과 그런 점에서 구별된다.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하나의

리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지나간 시대상황, 앞으로의 시대상황, 지금까지의 사회화 및 교육전략과 앞으로 달라져야 할 전략, 그리고 다루어져야 할 주요 구성개념들이 되겠다.

II. 근대성과 시민의식의 시대

1. 전후 근대성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미 등 서구의 도움으로 독립하였다. 근대화는 이때 독립한 여러 후진국을 지칭하는 제3세계에서 추진된 전략이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이 무렵의 지도적인 이념 패러다임을 근대성이라고 한다.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요약할 수 있다(윤근섭·김영기 외, 255). 동서 양대 진영 간의 냉전, 새로운 민족국가의 출현, 제3세계의 등장, 사회의 공업화 확산, 농업의 기계화, 현저한 과학의 발달, 관료제의 확대, 교육의 전파, 도시의 성장 등이다.

근대성이라는 용어의 전형은 근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화라는 것은 당시 사회학 이론에서 발달한 사회변동 혹은 문화변동 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후 한국과 같은 제3세계 여러 나라가 경험한 전반적인 사회변동은 그 이전에 여러 나라들이 경험했던 변동들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윤근섭·김영기 외, 255-257).

첫째, 이때 여러 나라들이 경험한 변화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면서도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 정치 엘리트의 주도에 의한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변동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후 일어난 제3세계의 변화는 정치 엘리트들이

구성개념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전 국민을 이끌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계획적이면서도 의도적인 것이었다. 이들 계획에 대한 이론적인 지원은 영미의 사회학자들이 제공하고, 경제적 금융적 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한 Bretton Woods 체제의 상징적 대표기관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담당하였다. 한국은 IMF와 IBRD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공한 모범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둘째, 근대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는 사회의 어떤 일부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난 변화였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났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후 제3세계에서는 정치·사회·경제·문화 이외에 인간의 이념·사고·가치체계에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 국가들에서 집권층의 지위 유지 수단으로 변화를 사회의 일부분에만 수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사회나 국가에서도 민중으로부터 폭넓은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셋째, 전후 제3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의 근저에는 일반국민의 생활 수준을 질적 및 양적으로 개선시키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보다 더 향상된 삶의 질을 유지해보겠다는 민중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엘리트들은 국민 생활 향상을 실현시켜줌으로써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후진국이 국민들의 분출하는 생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후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일어난 변화 양상을 일반적으로 근대화(modernization)라 하기도 하고 발전(development)이라 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큰 흐름을 근대성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러한 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위해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 과학자들은 의미 있는 여러 이론을 제시하

게 되었다. 기존 분과 학문들이 근대화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설명을 가장 잘 하는 학문이 경제학과 사회학이다. 경제학은 산업혁명 이후 서구 선진국의 경제발전이 제3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사회학은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여러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이 비경제적인 분야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이론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3세계 여러 나라의 근대성을 가장 포용력 있게 설명해주는 이론이 사회학의 근대화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의 근대화에 대한 관심은 근대화가 갖는 구조적 특징(structural characteristics)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근대화의 구조적 특징으로 도시화, 경제적 전문화, 귀속적 범주의 와해, 공식적 교육의 확산, 사회이동의 개방, 분화된 정치구조의 발전, 문화 및 가치체계의 분화, 정치 참여의 확대, 대중매체의 발달 등을 제시한다. 그들은 이런 요소를 활용하여 근대화 현상을 설명한다.

2. 시민의식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려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 적합한 의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시민의식(civic value 혹은 citizenship) 혹은 민주 시민 의식이 사용되는 것 같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려는 목적 지향적인 개념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 못지않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 존중, 자유, 그리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구성원 개개인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citizenship”의 라틴어 “CIVITAS”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을 의미한다.

여기에 공동체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 공동목적 및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2007: 77)는 민주시민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을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시민의식에 관심을 보였던 몇몇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라스웰(Lasswell 1951, 459-510)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① 개방성으로 이는 타인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태도이다. ②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③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④ 신뢰로 이는 인간이 갖는 잠재력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함을 의미한다. ⑤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5, 55-70)는 ① 공동체 소속감으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② 준법정식으로 법을 준수하고 정책을 따르고 필요할 때 꼭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신뢰로 이는 주위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④ 정치적 결정으로 주위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익단체에 참여하여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뉴만(Newman 1997, 175-187)은 여섯 가지를 주장하였다. ① 대화능력 ② 자료 처리 능력 ③ 의사결정 과정의 묘사 ④ 자신의 의견 정당화 ⑤ 원칙 적용 능력 ⑥ 협동능력 등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보았다.

넷째, 칼슈니스(Kaltsounis 1989, 3-4)가 미국 NCSS(National Council of Social Studies)와 SSEC(Social Science Education Council)에

서 논의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정리하였다. 그는 시민의식에 대한 지식, 민주주의 가치에의 헌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체반 과정과 절차에 숙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느끼면서 동시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새비지와 암스트롱(Savage and Armstrong 1996, 9-10)은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능력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의 주요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국가의 주요 업무 수행 방법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능력, 능동적으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화이트(White 1997, 230)는 사회 참여 능력을 중시하는데, 그가 의미하는 사회 참여란 교육 기능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려면 많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해 보자. 민주 시민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개인은 자기가 생활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알아차리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파동을 겪으면서도 균형을 찾아 움직이는 개방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에서 통합과 질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갈등, 동요, 불안정 등의 파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진화의 역동적 과정에서 시민적 자질을 그 사회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 해서는 안 된다. 갈등 상황을 당연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해내면서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3. 시대적 반성

상대적이긴 하지만 근대성, 시민의식, 그리고 감성(사회지능)은 시간적, 이념적 혹은 사회적 배경에서 약간은 다르다고 정리하였다. 근대성은 제3세계 나라들과 함께 제2차 대전 이후 공업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시민의식은 한국에서 근대성보다 약간 늦는 시기에 민주주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체제 자체의 건전한 유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감성(사회지능)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좀 더 인간적이고 정이 넘치게 하려는 심리적·정적·사회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주도로 그리고 정치 엘리트의 상층부가 주동적 역할을 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다 보니 추진 과정 속에는 가부장적으로 시민에게 시혜를 베풀려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권위주의, 시민의 입장에서 수동성, 일방적인 강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물질주의 강조와 전통적 가치의 무시, Maslow의 욕구에서 보았을 때 상층 욕구보다는 하위 수준 욕구에 초점이 맞춰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뒤지면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근대적인 태도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근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시민의식은 사회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개성이나 인권이 문체되기 일쑤였다.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부마사태, 4.19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사건과 각종 인권관련 사건들은 자유와 질서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피치 못할 것들이었다. 이런 부분을 일컬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표현까지 사용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쟁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경쟁은 승리자 측면에서는 자기애자(narcissists)³⁾를 양산하고 반대로 패배자 측면에서는 우울증(melancholy)을 양산하는 것이다(Oh 2010). 이것뿐 아니

라 어려서부터 감정이입(empathy)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집단에서 자기애자, 마키아벨리언(Machiavellians), 그리고 사이코패스(psychopaths)라는 어둠의 삼총사(Dark Triad)를 양산하게 된다(Goleman 2006, 118-132).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비극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의 이념을 받들고 추구하면서 장점과 함께 단점을 경험한다. 말하자면 최근 등장한 감성이나 사회지능은 근대성과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상처를 치료하려는 심리학, 사회학, 의학 및 신경과학(neuroscience) 등의 제학문이 시도하는 치료적 이념인 것이다.

4. 근대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1) 근대성 연구

지금까지 한국에서 행해진 전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연구가 윤근섭 등이 1985년에 행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인 것 같다. 여기 소개된 모델을 보면 근대성의 전반적 윤곽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근대성은 그 사회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의 진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산관계와 사회관계를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전재해 보기로 한다(윤근섭·김영기외,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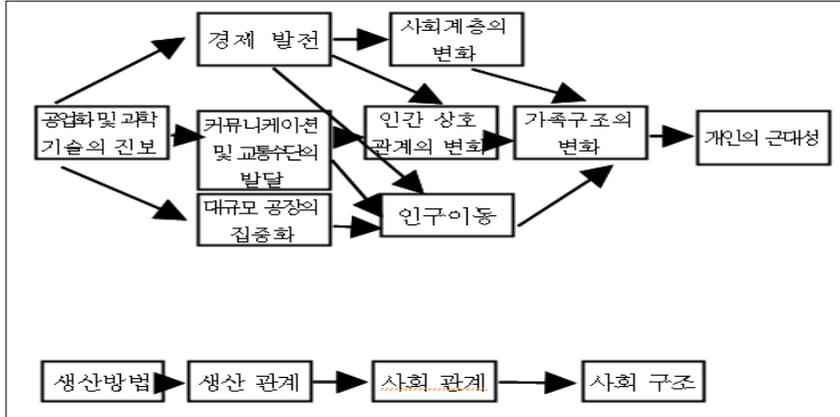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1>에서 생산방법은 공업화 및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리키고, 생산관계는 경제발전, 커뮤니케이션 및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대규모공장의 집중화를 지칭하고, 사회관계 및 사회구조는 사회계층의 변화, 인간상호관계의 변화, 인구이동,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런

3) narcissist가 자기도취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지칭하나 심리학에서 자기애자로 사용하므로 이를 따랐다.

요인들이 변화한 후 최종적으로 개인의 근대성이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림 1> 개인 근대성의 원인으로서는 공업화

(자료: 윤근섭·김영기 외,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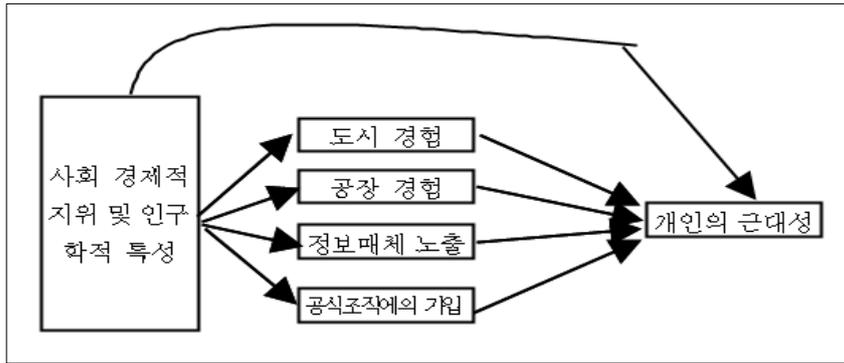
<그림 1>은 전반적인 윤곽을 기술하는 개념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근섭 교수 등이 행한 경험적 연구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어 이를 그대로 <그림2>로 전재해 본다. 여기서는 개인의 근대성이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개인의 근대성은 도시경험의 유무와 강약에 따라, 공장경험 정도에 따라, 정보 매체를 어느 정도나 접촉하고 있는냐에 따라, 그리고 공식조직에의 관련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연구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적 연구가 행해졌고, 대부분의 가설이 채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시민의식 연구

시민의식에 대한 경험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것 같지않다.4)

<그림 2> 개인의 근대성 요인 (자료: 윤근섭·김영기외, 297)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민의식의 하위구성개념(sub-constructs) 및 척도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일별하고자 한다(이문우 2010; 박희서·임병춘외 2002, 43-63). 박희서 교수 등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민정신이 조직시민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 모형을 <그림3>에 전제하였다.

<그림3>은 시민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또 적극적인 태도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말하자면 시민의식이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지 살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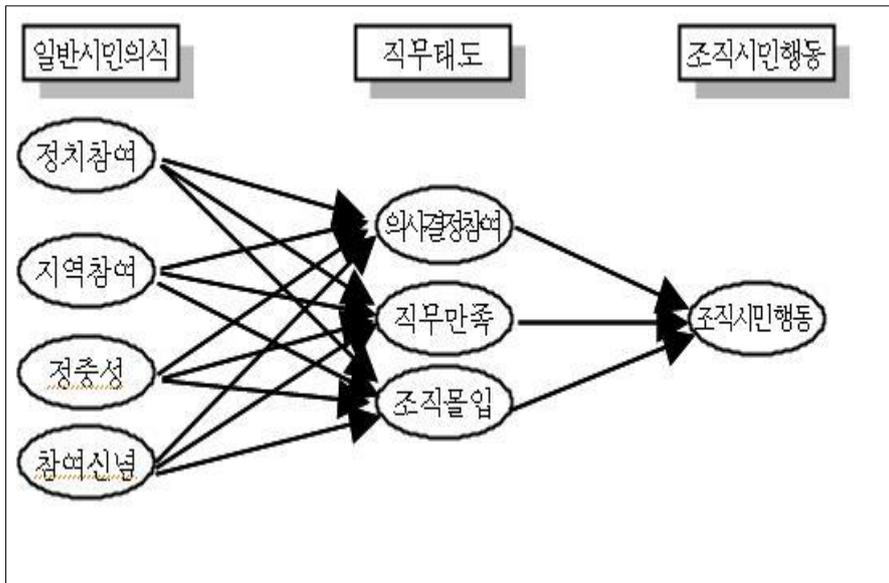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시민의식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정치참여, 지역사회참여, 정중성 및 시민참여신념 등 네 개가 사용되고 있다.

정치참여는 브래디, 버바 그리고 솔로츠만(Brady and Verba et. al. 1995, 271-294)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여기서 정치참여란 시민이 공무담당자를 선택하여 그들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이 척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

- 4)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한 연구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들의 연구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 본 연구가 참고삼아 검토한 논문으로 오금주(2002)와 권해원(2003)의 연구가 있다.

로 구성되었다.

<그림 3>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연구모형
(자료: 박희서·임병준 외 2002, 49)



정치 현안의 최신 정보 획득, 각종 선거에 참여, 정치현안을 다루는 TV 토론을 시청함, 국가의 장래에 관심을 가짐, 정치 현안을 놓고 지인들과 토론을 함 등 5개 항목이다. 이들 활동에 응답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한다. 1=강한 부정성을 그리고 7=강한 긍정성을 나타낸다.

지역사회참여란 응답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헌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코헨과 비고다 (Cohen and Vigoda 2000, 596-624)의 논의를 참고하여 수정되었다. 척도는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에서 주최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임 참여, 지역의 현안문제에 관여 혹은 참여, 지역의 불우 이웃돕기 성금 등에 의 기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중성이란 선량한 시민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규범을 지지하고 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코헨과 비고다(Cohen and Vigoda 2000, 596-624)가 입증한 두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나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문항과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정도로 구성되었다.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시민참여신념은 정부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력과 시민에게 미치는 정부 영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시민참여신념을 갖는 사람은 정부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하고 정부는 시민들의 호소에 반응적이라고 생각한다. 쉬에슬러(Schuessler 1982, 25)가 개발한 항목 중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3 항목이 사용되고 있다. 시민의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가 하는 문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라고 인지하는가 하는 문항, 그리고 정부가 여론에 얼마나 반응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항으로 척도가 이루어져 있다.

이문우(2010: 35-37)의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의식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인간존중, 준법정신,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사회참여를 들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하게 용어를 고쳐 쓴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네 분야의 시민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해 여기서 사용한 척도 문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2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4는 대체로 그렇다. 5는 매우 그렇다 이다.

인간존중에서는 7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①장애인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 ②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인 학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한다면 동등하게 친구처럼 대할 수 있다. ③ 학업성적이거나 가정형편 등에 따라 친구를 차별하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④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⑤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⑥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빼앗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⑦ 북한

동포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준법정신은 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례를 잘 지킨다. ② 불법 다운받기(mp3, 영화파일 등)나 불법 복제 CD-ROM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③ 상점에서 주인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많이 주었을 경우에 스스로 돌려준다. ④ 학교에서 조그만 휴지나 쓰레기를 귀찮아서 몰래 바닥에 버린 적이 있다. ⑤ 학교 교칙의 내용이 학생들의 자유나 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⑥ 학교에서 시험감독이 없고 학생들 양심에 맡겨서 시험을 친다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는다.

합리적 의사결정도 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① 옷이나 물건을 고를 때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한다. ② 용돈 사용 시 충동적이기보다는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편이다. ③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모든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린다. ④ 학급회장이나 학생회장 선출 등 투표를 할 때 개인적인 친분에 상관없이 양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학급의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⑥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통하여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⑦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수가 결정했으면 이에 따르는 편이다.

사회참여는 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① 학급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② 학급회장, 학교회장 선출을 할 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도 기권하지 않고 참여한다. ③ 학급과 학교의 중요한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④ 학교의 동아리(취미, 스포츠, 예술 등) 또는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 절약, 재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⑥ 일요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 결식아동 돕기 또는 독거노인 돕기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참여한 경험이 있다.

III. 감성 및 사회지능의 시대

1. 과거의 반성과 미래의 방향

근대성과 시민의식을 우리는 해당 시대의 이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시대와 그 시대의 이념을 연속적으로 반성(continuous reflection)해보고, 미래의 이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이념의 개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이념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적어도 앞으로의 이념은 정부, 엘리트 그룹,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논의 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대의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세 개의 의문 중 앞의 두 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 보자.

회고적으로 평가해 보면, 근대성은 Maslow가 말하는 생리적 및 안정적 욕구를 충족시켜보려는 시도로 출발하였다. 중세 이후 서서히 등장한 경쟁 심리를 인간 뇌리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였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을 소외시키고 공존하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노정시키고 말았다. 시민의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적인 의미를 그 밑바닥에 깔고 있다고 앞에서 평가하였다. 심지어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공존의 문제가 도외시 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인 반성(reflection)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가족, 친구, 조직,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잘 공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제는 근대성처럼 개인이나 내 가족만을 위하는 이념으로는 지구적 위기에 맞설 수 없게 되었다. 대서양 저쪽에서 잠자리가 펄럭이면 태평양 반대쪽에서 폭풍이 일어날 정도로 세계는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Aaker and Smith 2010).

원시 자연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후시 원시 자연 상태에 살던 시절에 우리 조상이 갖고 있던 좋은 것이 있었으면 그것의 원리를 찾아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이제 경쟁의 원리를 더 이상 연장에서 개인이나 친구관계에서, 이웃관계에서, 조직내 및 조직간 관계에서, 사회관계에서, 지역간 관계에서, 그리고 국제간 관계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 나만 계속해서 이기고 친구와 동료들은 계속해서 지는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우리가 “일등 해야 한다”는 말을 도처에서 하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많은 일등은 자기애자(narcissists)로 전락한다. 일등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우울증(melancholies)의 나락으로 떨어진다(Goleman 2006; Oh 2010). 물론 무한경쟁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지금은 그 문제점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FTA협상이 많다. 우리 협상대표가 이기기만 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일방적으로 이긴 협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요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면서 계약을 한다. 우리는 그때 마다 이기지 않는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서로의 상대방이 건전하게 생존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서 계약을 하고 서로가 도움을 얻는다. 여기에서 정책으로 시사 받을 점을 찾아야 한다.

반성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성(reason)과 보복적 정의, 감성과 어둠의 세 유형, 그리고 원상 회복적 정의를 차례대로 일별해 본다.

1) 이성과 보복적 정의

근대성은 인간 나뉠음으로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후적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벌주는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가 관통하고 있다(Lockhart and Zammit 2005). 의식하든 혹은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개인적으로, 가족 내에서, 학교, 조직, 교회, 사회, 국가 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과응보라는 말로 표현되는 보복적 정의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야기하는 그런 것이다.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한 번 낙오하면 다시는 본 대열에 서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보다는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방향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아도 좋다.

2) 감성(사회지능)과 어둠의 세 유형

경쟁에서 낙오하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꼭 행복한 것 같지도 않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많은 관공서나 기업의 사무실에는 자기에자(narcissists)가 많다고 한다(Goleman 1995).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서 한국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또한 자살율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오세윤 2011). 감성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잘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감성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감정이입(empathy)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해하고 여기 과장을 맞출 수 있어야(tuning)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인생의 초창기(생후 30개월 이내)에 배우게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감정이입 능력을 습득하기가 어렵다. 감성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소위 어둠의 세 유형(dark triad)인 자기에자(narcissist),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 및 사이코패스(psychopath)로 전락하게 된다. 이 얼마나 끔직한 결과인가. 주위에서 사이코패스의 심각성이 심심찮게 회자되는 것을 본다.

3) 원상 회복적 정의

원상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것이 있다(Lockhart and Zammit 2005).⁵⁾ 말하자면, 손을 가끔 베기도 한다. 약을 바르고 보살피면 낫는다. 원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초등학생이 무단결석을 해서 학급 분위기를 망치기는 하였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학생을 도와줌으로써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면 원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때 유기정학을 시키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무기정학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퇴학을 시켜버린다고 하자. 그 부분은 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개인과 사회에 상처로 남는다. 이는 원상 회복적이지 않고 보복적 정의에 따른 것이다. 퇴학 맞은 학생은 거리에서 깡패가 되어 떠돌다가 큰 싸움에 휘말리어 경찰에 단속되기도 하고 급기야 형무소를 들락거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생 원상이 회복되지 못한다. 개인과 사회에 계속적인 부담으로 혹은 상처로 남는다. 원상회복은 감성이나 사회지능과 맞물려 있다. 원상회복은 수월치가 않다. 일시적으로 보면 무단결석한 학생을 퇴학시켜 버리면(보복적 정의) 그만이니까 수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러한 원상 회복적 상황은 개인, 친구, 조직, 사회, 국가, 국제간 등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념적인 원리인 것이다.

원상회복적 정의가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사회적 감정(social emotions)인 죄책감(guilt)을 가져야 한다. 또 죄책감을 가지려면 대상자가 다른 사람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성이 없이는 본인, 가족, 학교, 공동체가 함께 해내는 원상회복적 정의를 만들어 갈 수 없다. 감정이입을 할 수 없으면 죄책감을 가질 수 없고,

5) 영어 restorative justice는 형사법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회복적 교정사범 정도로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록허트와 자미트(Lockhart and Zammit 2005)의 논리에 따라 사회 변화 논리의 전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죄책감을 느낄 수 없으면 원상회복적 정의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Goleman 2006; Lockhart and Zammit ebd., 46-47). 앞에서 살펴 본 어둠의 세 요소에 속하는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2. 이념: 밀림에서 고원으로.

비슷한 자연 현상을 놓고 밀림 생활이라면 약육강식의 경쟁(law of jungle)을 상징하고, 고원 은유(plateau metaphor)(Lockhart and Zammit ebd.)는 원상 회복적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조화로운 생활을 상징한다. 고원이라는 공동체의 구성 부분으로 호랑이, 노루, 토끼, 초원, 호수, 수풀 등을 상징하면 어떨까? 평화롭게 생태 체계가 유지되는 자연 상태를 꿈꾸면서, 비록 그것의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철학적 이념으로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개인, 조직, 국가, 사회 및 세계가 고원 상태가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 지금 감성과 사회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원상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현하려는 세상과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이념으로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달할 것 같으면서도 쉽게는 다다르기 어려운 고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를 디지털 시대, 지구촌 시대(global age), 혹은 영어로 글로벌(global) 시대라고도 한다. 공동체로서 고원 은유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지도층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이 시민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장려되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엘리트 지도층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어야 한다.⁶⁾ 또 그렇게 될 것이다.

6) 이것이 소위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지향성(customer orientation)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 논의가 지난 세기 말에 있었다.

3. 분권적 교육 기제

근대성 이념은 선진국이 제3세계를 가부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 이념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엘리트가 시민을 이끄는 데 필요했던 이념이다.

시민의식 이념에서는 선진국과 정치엘리트에 의해서 이끌리는 정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보아야 한다. 엘리트에 의해 이끌린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료적으로 이끌리는 점이나 선진국이 주동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국민을 교육시키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원 은유의 시대에는 감성을 교육시키고 생활화 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여기에서는 범사회적·분권적·자율적 교육 기제가 폭 넓게 가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도 여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 상당한 부분에서는 제도의 변화 내지는 제도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선진 제국에서 일고 있는 감성교육 기제와 원상 회복적 교육 기제가 균형 잡힌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감성, 사회지능 및 원상 회복적 정의를 논하는 대부분의 저술들은 저술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Goleman 1995, 1996; Albrecht 2006; Lockhart and Zammit).

IV. 연구 전략 및 방향

1. 변화 전략

앞으로 이 분야 연구를 위해 참고가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 무엇이 있으면 사람들이 변하는가? 둘

째,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셋째, 대상자들을 접촉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가? 넷째, 전달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다섯째, 전략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박동서 1978: 479-486).

1) 무엇을 가지면 변하는가?

개인, 단체, 조직, 사회 등에 어떤 자원이나 계기가 있을 때 변하는가? 첫째, 새로운 지식, 기술, 그리고 자원을 갖게 되었을 때, 둘째, 변화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셋째, 개인, 집단, 조직, 제도 및 국가에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 넷째, 새로운 신념이나 가치체계 혹은 이념을 접하게 되었을 때, 다섯째 이질적인 문화에 접하게 되었을 때, 변화 대상자들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2) 변화 계기가 되는 자원의 전달 전략

이들을 전달하기 위해 강제성, 유인성 및 규범성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방임, 유도, 지도, 강제 등이 사용될 수 있겠으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유인성에는 구제, 보조금, 용자, 감세, 시장가격조작, 상금, 표창, 훈장, 지위, 호칭부여의 방법이 있다.

3) 대상자 접촉 전략

여기에는 접촉 전략과 비접촉 전략이 있다. 접촉전략으로 교육, 훈련, 설득, 방문, 회의참여, 대중동원, 시찰, 여행 등이 있다. 비접촉전략으로 blogs, 비디오, 이메일, Facebook, widgets 등과 전통적인 PR, 텔레마케팅, 포스터, 라디오, 신문광고, 책자배부, TV, 우편, 핸드폰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트위터 등이 있다(Aaker and Smith ebd., 10).

4) 전달시기

전달은 변화의 시작 이전, 변화 시작 후, 종료 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정부 개입이 없어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적절한 시기에 이미 시작한 개입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전략 선택 기준

사업 성질, 대상인의 성격, 자원, 정치 이념, 시간성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2. 연구 방향

선진 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성 및 사회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우리 실정에 어울리는 교육 방법을 개발 · 보급 · 시행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원상 회복적 정의 기법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기법을 개발, 소개, 시행, 그리고 보급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를 정리해 본다. 우선, 예상되는 독립변수로 근대성, 시민의식, 감성 및 사회지능을 들 수 있겠다. 둘째로, 예상되는 종속변수로서 행동을 지향하는 변수군에 조직시민행동, 친사회적 행동이 있고, 삶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군에 물리적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들, 물리적 조건에 대한 인지변수로서 생활만족도, 심리적 정서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등이 있고, 신뢰도 중요한 변수이다.

V. 결론

우리 사회는 해체되어 가는 전통 사회의 잔재와 세련되지 못한 미숙한 근대성이 착종된 채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융합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황경식 1997, 5)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금 물질문명과 정신문화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문명은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디지털 사회로 치닫고 있는 데 비해 정신문화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언저리를 서성거리고 있다(황경식 ebd., 6). 우리에게서 가치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성격은 비영합적(non-zero-sum)이다. 따라서 고원의 은유를 동경한다고 해서 전통적 가치인 근대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근대성, 시민의식을 거쳐 감성(사회지능)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근대성과 시민의식 다음에 올 시민정신의 이름으로 감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지 어찌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도 하였다. 새로운 이념이 생기면 그 내용을 채우고, 이름도 짓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지금 붙여놓은 감성이라는 이름이 변할 수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정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분야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권혜원, 2003. "중학생의 민주 시민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서, 1978, 『한국행정론: 진정판』. 서울: 법문사.
- 박희서·노시평·신문주·홍진이, 2007, "정책 집행 관료의 순응제고를 위한 감성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1) pp. 71-92.
- 박희서·임병춘·김재휴, 2002,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일반 시민정신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친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pp. 43-63.
- 신두철, 2009,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제도화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집.
- 심연수, 2010,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7집.
- 오관석·신기현, 2008,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시민의식의 수준과 영역체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 오금주, 2002, "중학교 교과교육과 민주 시민 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윤, 2011,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사회지능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1호.
- _____, 2008, "규제정책 집행과정에서 감성의 매개변수적 역할 검증", 『지방정부연구』, 12(1) pp. 221-237.
- 유승우, 2005, "사회에서의 시민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2집.

- 윤근섭 · 김영기 · 홍대식 · 이상빈 · 이원규 · 김영정 · 송정기, 1985,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 12, 7-106.
- 이문우, 2010,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 조사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2005, “매개변수로서 감성이 주는 시사점을 활용한 지방분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저항완화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pp. 273-297.
- 정근식 · 김해식 옮김. 2007.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변동의 유형 메카니즘 전략(원저: Lauer. (1977).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Allyn and Bacon. Inc.)』. 서울: 한울아카데미.
- 황경식, 1997, 『시민공동체를 향하여: 근대성 그 한국사회적 함축』, 서울: 민음사.
- Aaker, J. and Smith, A., 2010. *The Dragonfly Effect: Quick, effective, and powerful ways to use social media to drive social change*.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Ajzen, I., and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brecht, K. 2006, *Soci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success(Beyond IQ, Beyond EI, Applying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to human interaction)*. New York: Jossey-Bass.
- Almodn, G. A. and Verba, S., 1965. *The Civic Cult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ady, Henry E., Verba, Sidney, and Schlozman, Kay L.,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pp. 271-294.
- Cohen, Aaron and Vigoda, Eran, 2000, “Do good citizens make

- good organizational citizen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itizen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Israel," *Administration and Society*, 32(5) pp. 596-624.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London: Addison-Wesley.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rockman, Inc..
- _____, 2006., *Soci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Kaltsounis, T., 1989, *Democracy and Education*. KWDI Conference
- Lasswell, H. D., 1951, *The Political Writings of Harold D. Lasswell*. N.Y: The Free Press.
- Lockhart, A. and Zammit, L., 2005, *Restorative Justice: Transforming Society*. Toronto: Inclusion Press.
- Newman, F. M. 1997, Alternative Approach to Citizenship Education: A Search for Authenticity Education for Responsible Citizenship. The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Citizenship Education.
- Oh, Sae-Yoon. 2010, The impact of social intelligence and narcissism on policy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et level bureaucrats and citizen's representative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Management and 3rd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telligence at Atlanta, July, 14-17.
- Savage. T. and Armstrong, D., 1996, *Effective Teaching Elementary Social Studies*. Princeton, NJ: Prentice -Hall Inc.

Schuessler, Karl F., 1982, *Measuring Social Life Feeling*. San Francisco: Josey-Base.

White, C. S., 1997,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Internet: Prospect for Civic Deliberation in the Information Age. *The Social Studies*, 88(1).

<http://blog.naver.com/ssmgt/100349929>[2011.1월 현재]

The Study Logic of Democratic Civic Virtues and Their Future Directions

Oh, Sae-yoon
(Honam University)

Abstract

Everything changes with time, including democratic civic virtues. This study suggests that diachronic citizen minds of past, present, and future be modernity, democratic civic virtue, emotions, and social intelligence. The name of emotions and social intelligence is tentative. It should be renamed to democratic and harmonious discourse in the global society. The discourses are now undergoing with social media on the Internet such as Twitter, TV, and so on. Modernity used to focus on the physical and safety needs of Abraham Maslow. Democratic civic virtue focuses on social order. Emotions and social intelligence should focus on a harmonious and peaceful way of life for global citizens, organizations,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This way of life will be possible with the aid of social media. The three citizen minds are not exclusive to one another but complementar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which we should pay attention is the social, international, autonomous education mechanism of the new citizen mind. As an ideal society, the plateau metaphor is introduced.

Keywords : modernity, democratic civic virtue, emotions and social intelligence, plateau metaphor, citizen mind.